2014년 7월 2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월20일(일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기청 창업진흥과장 김성섭(042-481-4407), 사무관 이하녕(042-481-8914)
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소재영과장(042-480-4335), 김시호(042-480-4336)

기업형 글로벌 액셀러레이터(창업기획사) 본격 시동

- 대기업 등 4개 창업기획사 선정, 민간투자시 창업자금R&D 등 연계 지원 -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과 창업진흥원(원장 강시우)은 **민간 주도형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"창업기획사"의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,** 7월말 업무협약을 거쳐 본격적으로 창업팀을 발굴 및 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금번 선정된 운영기관(창업기획사)은 **포스코, 한화S&C·Yozma 컨소시엄, 엔텔스·골프존 컨소시엄, 액트너랩·Lab IX 컨소시엄 등 총 4개사**로, 이들은 창업팀에 대한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그간의 기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·해외네트워크 등을 활용, 창업팀의 보육·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창업기획사는 **'14년 중기청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계획을 밝힌 「민간투자 주도형 고급기술 창업 프로그램*」의 하나로,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**되어 추진되고 있으며,

* VC 주도형, 대기업·선도벤처(창업기획사) 주도형, 전문엔젤 주도형 창업 보육프로그램을 통해 150개 기술창업팀 발굴

** 액셀러레이터는 팀당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마련하고, 정부는 팀당 3년간 최대 9억원의 지원사업(엔젤매칭투자, R&D, 사업화자금, 해외마케팅) 연계

○ 이번에 선정된 창업기획사는 **대기업, 선도벤처 등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고 창업팀 보육에 나선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을 통한 창업프로그램(창업선도대학, BI 등)과 구별**되며, 자체 해외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도 연계함으로써 **명실상부한 "글로벌 액셀러레이터"**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,

○ 지난해 시범사업*을 거쳐 **올해부터는 약 50개의 고급기술 창업기업 발굴을 목표로 본격 시행**된다.

* 민간기관(6개)을 선정, "열린 창업경진대회"를 개최하여 유망 창업자 발굴

□ **창업기획사는 3년 이내 (예비)창업자**(연예기획사의 연습생에 비유)**를 발굴, 약 3개월간의 초기보육기간**을 거쳐 **투자***(1억원 이내) **및 보육**을 직접 제공하게 되며,

* 창업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투자를 하되,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전환형 투자(융자↔투자)는 금지

○ **정부는** 창업기획사가 최종 선발한 창업팀에게 **창업자금(최대 1억원), 엔젤매칭투자(팀당 최대 2억원), R&D 지원(최대 3년간 5억원), 해외진출시 마케팅 지원(최대 1억원) 등 총 9억원 내외의 후속지원을 통해** 기술창업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측면 지원한다.

□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,

○ "창업기획사 사업은 **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**로, **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**하고, **운영 측면에서도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**하는 특징을 갖는 프로그램" 이라고 언급하면서

○ "이 사업을 계기로 **기존의 정부 주도의 창업팀 발굴 및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민·관 공동 주도의 창업생태계 조성**을 위해 노력하겠다."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하녕 사무관(☎ 042-481-89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